

‘제주흑우’ 번식우 30마리 초지 방목 시작

- 제주 중산간 초지에 방목...활동량·체형 등 건강 상태 점검
- 발정 행동·보행 상태 관찰...번식우 관리 기초자료로 활용
- 우리 고유 ‘제주흑우’ 안정적 사육·보존 기반 마련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제주흑우’ 번식우 30마리를 4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제주 중산간 지역 55헥타르(ha) 규모 초지 8개 구역에 순환 방목한다고 밝혔다.

‘제주흑우’는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보존, 증식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 재래 소이다.

농촌진흥청은 유전적 가치가 높고, 고유성이 강한 ‘제주흑우’ 개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번식 기반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방목 기간에는 ‘제주흑우’ 번식우의 활동량, 체형 상태, 발정 행동, 보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주 지역 여건에 맞는 사육 관리 기초자료를 확보해 ‘제주흑우’의 안정적인 사육과 증식에 활용할 방침이다.

초지 방목은 소가 초지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풀을 뜯는 사육 방식이다. 소가 충분히 걷고 활동하면 적정 체형을 유지하고, 발굽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

또한, 자연스러운 초지 생활은 소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활력을 유지하고

진반적인 건강 관리에도 보탬이 된다.

초지 풀에는 수분과 섬유질, 비타민, 무기질 등이 풍부하고, 소의 되새김질 기능을 돕는 기능이 있어 영양 균형을 유지해 준다.

특히 소의 활동량 변화는 발정 상태를 판단하는 주요 참고 자료이므로, 활동량이 늘어나고 반추(되새김질) 행동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발정기에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 김남영 센터장은 “‘제주흑우’ 특성에 맞는 방목 관리 자료를 축적해, 건강한 개체 관리와 안정적인 증식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방목 계획 및 ‘제주흑우’ 설명

| | | | | |
|-------|---------------------|-----|-----|--------------------|
| 담당 부서 |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 | 책임자 | 센터장 | 김남영 (064-754-5701) |
| | | 담당자 | 연구사 | 이승은 (064-754-5720) |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 방목 계획

- 방목 대상: '제주흑우' 번식우 30두
- 방목 기간: 2026년 4월 28일 ~ 9월 4일
- 방목 장소: 난지축산연구센터 방목지(해발 500 ~ 800m 한라산 중산간)
- 방목 공간: 55 헥타르 넓이의 초지 8개 구역을 순환 방목할 예정

□ 제주흑우 소개

- (특징) 전신의 털 색깔이 흑색이며 체구가 작으나 체질이 강건하고 지구력이 좋은 것이 특징이며, 다른 품종과 교배되지 않고 동종 번식을 하면서 사육되어 한우, 칩소, 교잡우와는 다른 '제주흑우'만의 고유 혈통을 가진 고유 재래종으로 천연기념물 제546호로 지정되어 관리 중
- (사육 현황) 제주도 내 흑한우 포함 약 1,593('25)두 사육하며, 연간 200~300여 두 도축
 - * 제주흑우 원종: 501두(축산생명연구원 248, 농가 193, 난지센터 39, 서귀포축협 21)('25)
- (기원) 제주흑우는 유럽 원우와 인도 원우의 혼혈종으로, 중국과 몽골을 거쳐 한반도로 유입 이후 다른 품종과의 교배 없이 동종 번식을 통해 정립
- (역사 1) 기원전부터 제주 지역에서 사육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왕조실록, 탐라순력도, 탐라기년 등 여러 고문헌에 제향 및 진상품으로 공출된 기록이 있음
- (역사 2) 일제 강점기인 1924년에는 '제주흑우'의 암소 125두와 수소 50두가 일본으로 수탈된 후 1925년과 1928년에도 추가적인 수탈이 있었으며, 일본은 자국의 '미시마소'와 교배하여 '제주흑우'의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킴